



Korean Traditional Musical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과 함께하는
제1회 토요일국악상설무대

만남

2008년 5월 31일 (토) 오후 7시30분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선화당) 잔디마당

- 주 최 공주시, 공주문화원
- 주 관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예인촌
- 후 원 충청남도, 주)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 출 연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예인촌회원



예인촌 마흔세번째 정기공연 Program

사회 : 서 경 오



1. 화관무

출연자 : 박혜정, 이효진, 문명희, 문보람, 김다은, 박정주, 김영주

화관무는 태고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으로 예식성이 강하고 규율이 내제된 궁중의 복식으로, 장식적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춤사위는 한삼으로 그려내는 유동의 멋과미를 표출한다.



2. 가야금독주 김병호 류 가야금 산조

출연자 : 가야금-고정민, 장단-이상명

산조는 본래 연주자의 기량에 따른 감정표현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아닌 주자의 개성과 감정이 담긴 음악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죄었다 풀었다 하는 즉, 긴장과 이완의 대비에 아름다움이 산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하겠으며, 심오한 가락을 만들어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산조이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판소리제의 산조로 다양하고 깊은 농현을 구사하며 다양한 조와 선율로 인간의 감정을 표출 하고 있는 산조이다. 김병호류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로 짜여 있다.



3. 교방굿거리

출연자 : 최 선 교수

고려 문종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기제도에 따라 교방청(敎坊廳)에 의해 내려온 춤이다. 교방(敎坊)이란 궁내에 설치한 기녀들의 악·가·무(樂·歌·舞)의 교습기관으로 나중에는 지방까지 교방청을 두게 되었으나, 조선왕조의 몰락으로 관기제도가 폐지됨으로서 궁중 여기(女妓)들이 기녀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악·가·무로 생업을 삼았다. 이 작품은 김수악류 교방굿거리로서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 차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한면서 애절한 무태로서 정, 중, 등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다.



4. 판소리 심청가 中 "주과포혜"

출연자 : 소리-이 슬, 고수-신성수

산후병으로 꼭씨부인이 죽고 장사를 지낸 뒤 심봉사가 어린 심청을 안고 오열하는 대목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과 앞 못보는 봉사로서 간난 아이를 홀로 키울 막막함이 잘 표현된 부분이다.



5. 국악관현악 "방황"

이경섭 작

일반적인 국악음계에서 벗어나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전통리듬과 양악의 리듬을 적절히 섞어 표현한곡이다. 색소폰의 선율과 대피리의 선율, 가야금의 아르페지오 선율, 소금과 해금의 주선율, 아쟁과 신디의 아래 음 처리가 색다른 맛을 자아내는곡이다.



6. 국악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II"

김선재 작

인생의 희·노·애·락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곡으로 서두 부분의 피리 앙상블과 빠른 4박 비트의 Rhum Bari듬으로 크로스오버적인 리듬의 변화와 회성진행이 화려함을 더한다. 작곡자는 도전적이고 활력있는 모습을 곡에 담았다.



7. 국악가요 "사모곡, 하늘별 들에 꽃"

황호준 작, 노래-이 슬

사모곡은 작곡가 조원행의 곡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을 섬세하게 풀어낸 곡이며, 하늘별 들에 꽃은, 문득 밤 하늘을 바라본다. 오늘도 어김없이 총총히 박혀 있는 별, 그 별이 들에 내려앉아 꽃이 되었다. 다시 자기 자리에서 부끄러운 듯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다. 아아 아름다워라 별이 있어 하늘이고 꽃이 있어 들이로구나



8. 사물놀이

출연자 : 김익세, 송성빈, 이상명, 송현지

사물놀이란 야외에서 연주되던 풍물굿을 실내에서도 연주될 수 있도록 쟁과리, 징, 북, 장구의 4가지 악기만 편성된 타악기 곡을 말한다. 경기·충청 옷다리는 쟁과리가 중심이 되며, 영남가락은 북이 중심이 되고, 호남가락은 장구가 중심이 된다.

흥에 겨워 움직이는 울동과 각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연주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곡으로서, 특히 쟁과리와 쟁과리, 즉 짝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 받는 대목은 사물놀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인촌 마흔네번째 정기공연 **출연진**

■지휘



원장 노종락

■협연출연자



무용 최선



노래 이슬

•공주대 무용학과 교수

■출연자



거문고 나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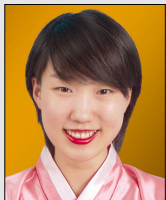
거문고 유임선



가야금 고정민



가야금 임정연



가야금 이수진



해금 이혜선



해금 이지혜



아쟁 정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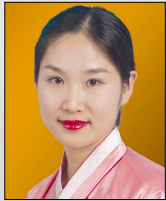
대금 전윤희



대금 이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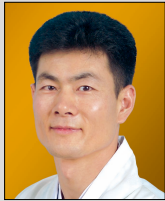
피리 조성환



피리 김선영



타악 김익세



타악 신성수



타악 송성빈



타악 이상명



타악 송현지

■객원출연자

아쟁:김소은 피리:서용민 대금:김명희 신디:오지선

■STAFF

공연기획: 지기현 음향감독: 민병문(하늘소리) 조명감독: 최명성(한빛조명) 무대: 백제무대

■오시는 길



공주문화원 文化的 도시 공주의 文化동산 지킴이

▣ 공주문화원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
- 문화심성계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한 계층간 문화수준 격차를 해소시키며,
- 지역실정에 맞는 과목 편성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6월 예인촌 마흔네번째 정기공연

일시: 2008. 6. 19 (목) 오후 7:30

장소: 공주문화원 공연장